

공정거래위원장, “상생협력으로 산업의 미래 경쟁력 함께 키워야”

- HD현대 -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 체결식 개최 -
- 금융·기술·경영·안전 지원부터 기술 보호까지 종합 지원 확대,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 뒷받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10일(목)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HD현대 그룹 5개 계열사*(이하 ‘HD현대’)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 -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원사업자와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실제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중심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마린솔루션, HD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을 넘어 2차,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여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HD현대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력 체결식 개요 >

- 일시 : 2026. 9. 10.(목) 14:00 ~ 15:00 (약 60분)
- 장소 : HD현대중공업 영빈관(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 참석자 : 약 10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HD현대 5개 계열사, 1차·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HD현대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HD현대의 1·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술·경영·안전

- 1 -

HD현대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금융·기술·경영·안전부터 기술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2차·3차 협력사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가점, 우선지원, 포상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HD현대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7,500여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HD현대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은 하나의 제품과 설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전문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로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오늘 협약에 담긴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들은 협력사의 현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 3 -

지원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HD현대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되었다.

먼저, HD현대는 협력사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는 등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이 하위 협력사까지 실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대금 수령 가능

**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는 현황을 실시간 추적·관리

아울러, HD현대는 올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18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설비투자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였는데, 이와 함께 동반성장펀드 및 보증상품 등을 활용한 금리·보증료 우대 등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교류회, 공동 특허출원, 생산기술 교육 등 기술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자료 제공 시 전자 N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료 임치, 기술 보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핵심기술이 부당하게 유출·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기술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아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품질관리 인원의 현장 방문지도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ESG 컨설팅,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안전교육센터 운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안전보건 인증획득 및 안전보건 물품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2 -

<붙임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HD현대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명현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박지아 (044-200-4946)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대한민국
대통령실

OPEN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 4 -

HD현대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2026. 9. 10.(목) 14:00



말 씀 자 료

- 일 시 : 2026. 9. 10.(목) 14:00
- 장 소 : HD현대중공업 영빈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 5 -

기업은 그저 이윤만 좇으면 된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국가의 뒷받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정교한 시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려면
결국 얼마나 잘 설계된
시장을 갖췄는가가 중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체결하는 상생협약과 같은 자율적 규범도
그러한 공공 거버넌스를 함께 채워가는
의미있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우위를 가진 소수가
거래관계의 성과를 독차지하는 질서가 굳어지면,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7 -

HD현대 그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상생협약을 위해 함께해주신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마침 오늘은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HD현대와 협력사가 함께
상생을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흔히
국가의 개입 없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 6 -

그런 시장에서는 강자는 안주하고
약자는 혁신에 나설 여력조차 갖지 못해
결국 경제 전체의 혁신 동력이 떨어지는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바로 이러한 착취적 제도야말로
국가와 경제가 정체하는 근본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불평등과 양극화이며,
그 배경에는 기업 생태계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허리 역할을 할 중견·중소기업은 두텁지 못하고
영세한 소기업만 넘쳐나는 현실은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지금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장 시스템은 한 번 마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 8 -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개혁을 압축적으로 겪어왔고,
그 한 축이 바로 노동권의 신장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는 일은
시장 시스템을 포용적으로 바꾸어가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오늘 협약이 지향하는 상생협력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선진국을 뒤쫓아야 했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은 단가 인하 경쟁 속에서
노동과 협력사의 비용을 줄여가며
수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성장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의 창의성과
정당한 대가를 받는 협력사의 생산성이
기술혁신의 발판이 되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 9 -

이러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협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은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일찍이 애덤 스미스도
부당한 억압이나 독점적 힘이
시장을 좌우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경제의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11 -

이러한 성장 원리의 전환은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립 에기웅 등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낡은 것을 밀어내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심할수록
그 혁신의 동력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선순환이
특히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곳이
바로 조선·기계·에너지 산업입니다.

이들 산업은 하나의 제품과 설비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전문기업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로,
그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10 -

더 많은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포용적인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경제학이 오랜 시간 확인해 온 원리입니다.

오늘 협약에는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함께
기술교류·공동 특허출원·기술교육 등을 통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
기술자료 임치와 전자 NDA 체결 의무화 등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고
상생결제를 확산하기로 한 것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 12 -

기술자료를 보호하며
기술경쟁력을 함께 높이기로 한 것은
협력사가 마음 놓고
기술혁신에 나설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도록
엄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것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몫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HD현대처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함께 호응해줄 때 비로소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협약에 담긴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들은
협력사의 현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드는 한편,
원칙을 어기는 기업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려 애쓰는 기업은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맺는 상생협력의 약속이
협력사들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HD현대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져,
기술과 혁신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HD현대와 협력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